

“구민 행복 질주 회복·성장 집중”

“시민과 만든 정책 복지로 구현”

민선 8기 3주년 문인광주 복구청장

6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 눈길
혁신평가 기초 지자체 1위 쾌거
문화센터·도서관 등 SOC 확충

민선 8기 3년간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광주 복구는 남은 1년 동안 회복과 성장에 집중한다.

문인 복구청장은 6일 “민생 경제와 항구적 안전, 청년 정책, 생태 친화, 포용 도시 조성 등 전방위적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 일상에 기본 좋은 변화를 안겨드리는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구는 민선 7기부터 국회 및 중앙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광주 자치구 최초로 6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혁신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아오며 뛰어난 행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입증했다.

2020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이후에는 재해 예방 공모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해 총예산 1천393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문흥동 성당과 복구청 사거리, 신안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되고 있다.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복구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국비 19억9천만원을 받아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취·창업 지원 사업을 펼치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정주 여건도 조성하는 중이다.

지난해 평두메습지가 광주 최초 랍사르습지로 등록된 데 이어 복구는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을 준비하며 국제사회로부터

터 인정받는 생태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모두를 위한 포용 도시를 위해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며 의료, 일상, 안전, 공동체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왔다.

이와 관련, 복구는 민선 7기부터 구민 모두 품격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6년간 문화센터, 체육관, 도서관 등 총 31개의 생활SOC 시설을 설치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로 지역 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원석’ 발굴의 장을 마련하고 제1회 무등문학상을 신설했다.

또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의 거리’를 중심으로 K-컬처와 연계된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복구만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문인 복구청장은 “민선 8기 3년간 복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43만 구민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한 복구 완성을 위해 1천700여 공직자와 함께 한발 더 뛰겠다”고 밝혔다. /인재영기자

민선 8기 3주년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동 미래발전계획 ‘자치모델’ 확립
생활 인프라 확충·민생 회복 집중
금대 화재 피해 구제·정상화 총력

민선 8기 3년의 주요 성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변화와 민생 부담을 덜어낸 혁신 행정을 꼽은 광주 광산구는 남은 1년간 ‘지속 가능한 내일’ 실천에 박차를 가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6일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는 다시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구정, 일하는 방식을 바꾼 광산구의 행정은 이제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구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과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를 통해 광산구는 지난해까지 약 7천7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75% 이상을 처리했다.

그 결과 ▲불법 현수막 정비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내 집 앞 맨발길 조성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 등 생활 밀착형 행정이 실현됐고 관련 만족도 조사에서는 시민의 94%가 긍정적이라 답했다.

주민이 직접 마을 정부를 운영하며 만든 ‘동 미래발전계획’은 전국 최초의 주민 주도형 자치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광산구는 21개 동 주민과 설명회를 열어 시민들이 직접 정



의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대해 1천436개의 질문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참여 기반 행정의 성과로 ‘당근광산 프로젝트’와 ‘이동노동자 일터개선 사업’은 전국 일자리 대상 2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살던집 프로젝트’를 통해 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존엄을 지키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돌봄 실험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어르신 돌봄 공약에 반영됐으며 현재는 국제협업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생활 인프라·문화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산CC는 건립 14년 만에 직업 체제로 전환됐고 파크골프장은 내년까지 6개 구장 8홀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서는 피해 구제와 공장 이전을 통한 지역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선 ‘다같이 민생프로젝트’를 가동하며 6대 분야 64개 세부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하고 오는 9월에는 100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도 발행할 계획이다.

박병규 구청장은 “일지리를 비롯한 지역 문제를 정부나 시장이 아닌 주민이 정의하고, 실행계획까지 직접 만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실현이 코앞에 다가왔다”며 “지난 3년간 민주주의로 만든 성과를 민생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육근기자

남구, 오늘부터 백운광장서 ‘K-컬처’ 영상 상영

연말까지 문체부·콘진원 보유 15편

이순신 장군 해상 전투 재현 등 다채

광주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에서도 ‘K-컬처 스케이’ 신기술 융합 콘텐츠가 상영된다.

6일 남구에 따르면 ‘K-컬처 스케이’는 서울 광화문과 인천국제공항에 조성된 복합 문화 체험공간으로, 스크린·뮤지엄·아트랙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다. <사진>

남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유한 이 콘텐츠를 광주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송출 기간은 7일부터 12월까지로 총 15편의 작품이 차례로 상영된다. 각 콘텐츠는 20초에서 최대 4분 분량이며 계절 기념일 테마에 맞춘 영상도 포함된다.

첫 공개작은 5편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해상 전투를 생동감 있게 재현한 ‘승리의 바다’ ▲거북선을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나는 ‘타임



워프, 시간을 달린다’ ▲토끼 캐릭터의 지구 여행기를 담은 판타지 영상 ‘검은 토끼의 모험’ ▲해양 생물이 유영하는 모습을 4D로 표현한 ‘상상의 바다’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더 키네틱’ 등이다.

이 밖에도 광복절, 추석, 크리스마스 등 주요 시기와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가 연달아 상영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백운광장 미디어월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동구, 건강증진사업 ‘최우수’ 영예

복지부 주최...종합부문서 수상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도 ‘우수’

광주 동구가 최근 건강을 주제로 한 성과대회에서 잇따라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6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

우수기관상과 전략부문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앞서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지난달 25일 열린 ‘2025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성과대회’에서는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종합 검토한 결과로 동구는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제공, 생활터 중심의 주민 참여형 건강관리, 지

역자원 연계를 통한 실효성 높은 사업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지도자 양성 및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건강매니저 서비스 ▲생활터별 건강동아리 운영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참여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모두가 건강한 동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영기자

광산구 “식생활 지원 ‘천원 반찬’ 판매”

천원한끼 식당 4곳...일반인은 2천원

광주 광산구는 6일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식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천원 반찬’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생 회복을 위한 ‘천원 더 가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형 ‘해피빈’ 모금과 기업 후원 등을 통해 반찬 보관

용 냉장고와 재료비를 확보해 추진하게 됐다.

천원 반찬은 노인·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이 집에서도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광산구가 운영 중인 ‘천원한끼’ 식당 4곳(우산·도산·월곡·침단집)에서 판매된다.

각 매장 운영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까지(월곡점은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1천원, 일반 시민은 2천원에 반찬을 구매할 수 있다.

모든 반찬은 지역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매일 아침 정성껏 조리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차린 1천원의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민생 활력 노력이 이제는 시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복지로 확장되고 있다”며 “점심은 ‘천원한끼’, 아침과 저녁은 ‘천원 반찬’으로 시민의 부담 없는 삼시세끼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육근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오시는 길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

CMYK